

지역 소식 통

고창소방서, 구급 이송 체계
구급대원 판단 존중 홍보

고창소방서는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류해 최적의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중증도 기반 이송 병원 선정' 체계를 현장에 적극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중증도 분류란 환자의 증상과 생체징후 등을 평가해 경증, 중증증, 중증 등으로 나누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가능하게 하여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지역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돕는다.

특히 고창소방서 구급대는 '병원 전 단계 중증도분류(Pre-KTAS)'와 응급의료정보망을 활용해 환자 상태에 맞는 병원을 선별하며, 필요 시 전북구급상황관리센터와 협조하여 이송 병원을 사전에 조율한다.

윤기열 대응예방과장은 "단순히 가까운 병원인 아니라,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병원을 찾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보건소,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캠프 운영

부안군보건소는 지난 17일 부안군 환경사업소 근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캠프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캠프는 원광대학교병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전문센터와 연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전문 검사와 전문의 건강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캠프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등 기초 검사와 함께 동맥경화도검사, 심방세동선별검사 등 전문 검사를 진행하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원광대학교병원 전문 의료인의 건강상담으로 진행됐다.

캠프에 참여한 한 대상자는 "평소에 쉽게 할 수 없는 검사와 전문의 상담을 통해 나의 혈관 수치를 알고 건강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돼 좋았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22회 고창청보리밭 축제 개막

20만여명의 초록물결과 함께 먹거리 · 즐길거리 '다채' ...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축제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 축제' 전북 고창군에서 '제22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화려하게 개막했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20만여명의 광활한 대지에 눈부신 초록물결과 함께 먹거리, 즐길거리와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축제다.

지난 19일 오후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만규 고창군의회의장 및 군의원, 서울 관악·마포·성북·송파구 및 부산 동래구, 경북 상주시 등 자매결연도시에서 참석했다. 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 농촌

인력 우호협력국에서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내·외빈들의 축하 인사와 고창이 자랑하는 보리로 만든 보리떡케이크 키팅식으로 기념식을 진행 후 식후 행사로 군민들과 함께 보리밭 사잇길 걷기를 끝으로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올해 청보리밭 축제는 5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봄바람에 파릇하게 훑날리는 청보리밭과 K-영화, 드라마가 함께 하는 축제가 펼쳐진다.

꼭삭 속았수다, '도깨비' 등 청보리밭을 배경으로 한 인기 콘텐츠 촬영 스팟에 포토존을 조성하고 의상대

여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제22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4회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 선정된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축제로,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에서 아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해줄 것"이라며, "축제장은 물론 다수가 모여드는 장소도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해 군민과 관광객이 맘껏 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석정온천 관광지내 웰파크호텔 개관식 개최

지하 1층 · 지상 9층 규모 91실의 객실 · 컨벤션홀 · 웨딩홀 등 다양한 부대시설 갖춘 종합 힐링 공간

고창군 석정온천 관광지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프리미엄 복합관광시설 '고창 웰파크호텔'이 지난 19일 개관식을 열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 개관식은 호텔 입구에서의 테이프커팅을 시작으로 △기념사 및 환영사 △축사 △공사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떡 커팅식 △기념촬영 △시설투어 등으로 이어졌으며, 약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만규 고창군의회의장 및 군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지역 도의원과 군의원 등 정 · 관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고창 관광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고창웰파크호텔은 서울사이언스타워(주)고창웰파크시티가 조성한 관광숙박시설이다. 지하 1층 · 지상 9층 규모에 91실의 객실과 함께 컨벤션홀, 웨딩홀, 레스토랑, 카페, 세미나실, 화이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종합 힐링 공간이다.

고창읍성, 고인돌유적, 운곡습지, 청보리밭 등 고창의 대표 관광지와 인접한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거점으로서의 성장이 기대되며, 웰니스와 문화 휴식, 연회를 아우르는 복합 콘셉트로 고창 관광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균 웰파크호텔 대표이사는 "고창 웰파크호텔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형 관광시설로서,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상품 운영과 지역 농특산물을 적극 사용할 예정이다"라며 "고창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개관 소감을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웰파크호텔은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감곡면, 열린 공동체 공간... 문화센터 · 공유부엌 준공

정읍시가 감곡면 주민들의 문화·소통·공동체 활동을 위한 핵심 시설로 '디딤돌 문화센터와 공유부엌'을 준공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17일 감곡면 공유부엌에서 '감곡 디딤돌 문화센터와 공유부엌'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주민들 관계기관 내외빈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 기념식 테이프 커팅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에 문을 연 감곡 디딤돌 문화센터와 공유부엌은 감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됐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 공식적인 개소식을 가지며 앞으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디딤돌 문화센터는 연면적 356㎡ 규모로 작은도서관과 회의실, 사무실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갖췄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학습, 소통,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중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함께 개소한 공유부엌은 연면적 197㎡ 규모로 마을공동부엌과 작업장, 교육장, 주차장 등을 갖춘 실용적인 시설이다. 이곳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요리하고 음식을 나누며 공동체적 유대감을 키우는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시설 개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곡 디딤돌 문화센터와 공유부엌이 주민들의 문화·교육·소통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재활용 증대 · 순환경제 구축

부안군-노인회 부안군지회, 투명 페트병 자원 재활용 업무협약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18일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지회장 김성태)와 투명 페트병 자원 재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투명 페트병 분쇄처리기 3대를 설치하며 부안군지회는 노인 일자리 인력으로 투명 페트병을 직접 수거해 분쇄 처리 후 재판매하면 의류, 가방 등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지회와

상호 협력해 자원 재활용 확대 및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투명 페트병 무인화수기 8대를 설치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 10대를 추가 설치해 투명 페트병 자원 재활용 증대 및 순환경제 구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방지 보증료 지원

정읍시가 최근 급증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총 5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에게 최대 4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기준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일반 임차인은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이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주택소유자, 법인 임차인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그동안 임차인의 전세금 피해 예방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만성질환자 '합병증 검진비 지원' 추진

정읍시가 심뇌혈관질환의 조기 예방과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만성질환자 대상 합병증 검진비 지원에 나섰다.

시는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등 주요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 예방하기 위해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150명을 모집한다. 또 읍·면 지역 보건소 등록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50명을 추가로 선정해 총 200명에게 검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40세(1985년생) 이상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질환자다. 검사항목은 경동맥 초음파, 미세단백뇨 검사, 안과검사(안압, 안저, 굴절검사)로 구성됐다.

검진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과 처방전을 지참해 정읍시보건소를 방문해 검진 의뢰서를 발급받은 뒤, 본인이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진은 지역 내 내과 8개소와 안과 3개소 등 총 11개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